

보도시점 (전매체) 6. 23.(금) 20:00

## 혁신생태계가 빠르게 성장 중인 베트남과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 협력 강화

- 이영 장관·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양자 면담 개최 ...  
양국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 강화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현지시간)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 쯔 중(Nguy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가졌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국가 전반의 개발·투자 계획을 관장하는 부처이며, 기업 지원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부와는 한·아세안 정책 대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신설된 하부조직인 국가혁신센터(NIC, National Innovation Center)는 창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특화되어 있다.

응웬 쯔 중 기획투자부 장관은 기획투자부 차관, 닝 투안(Ninh Thuan) 성 인민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16년부터 기획투자부 장관직을 맡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인재의 양국 상호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베트남 혁신 인재를 한국에 유치하여 우리나라를 창업기업(스타트업) 사업(비즈니스) 중심지(허브)로 육성하고, 올 하반기 개소하는 케이-스타트업 센터(KSC) (K-Startup Center) 하노이가 국내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베트남 전략적 진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부는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연수도 수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영 장관은 “베트남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무역 대상국이며, 한국에 진출해 창업하고자 하는 열기도 뜨거운 국가”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오지영 (044-204-7550)
		담당자	사무관	신연재 (044-204-7558)



**□ 양자면담 개요**

- (일시·장소) (현지시간) 6.23, 하노이 기획투자부
- (주요 의제) ①베트남 스타트업·인재의 한국 진출, ②한국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③ 중소기업부와 기획투자부 간 교류 활성화

**□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1945~) 주요기능**

- 국가 5개년 및 연간, 산업별, 지역별 경제·사회 발전·개발계획 수립
- 외국인 투자/해외직접투자 관리, ODA 등 원조사업 승인·진행 관리
- 베트남 국영 기업 관리 및 국내 비정부 기관 관리, 국가통계관리
- 산업공단, 경제특구, 하이테크 산업단지,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관리

**□ 중소기업 지원현황**

- SMEDF(중소기업발전기금), NIC(국가혁신센터, 창업/스타트업, 투자유치), TAC(베트남 북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중소기업 지원

**□ 기획투자부 장관 약력**

- 응웬 찌 중(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
- 1960년생, 하띵성(중부) 출신, 경제학 박사
- 2016~현재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 2014~2016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 2010~2014 Ninh Thuan (닝 투안) 성 인민위원장
- 2008~2009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